



Chronic colitis healed through reading *Science and Health*

by Juan Antonio Diaz, *Christian Science Sentinel*, January 29, 2007

‘과학과 건강’을 읽음으로써 만성 장염을 고치다.

나는 엘살바도르를 떠나 미국에 도착했을 때 심한 복통과 그 밖의 모호한 다른 몇 가지 증상으로 몹시 앓았다. 몇 가지 검사를 한 후에 의사는 만성 장염이 급성으로 변환 된 경우라는 진단을 내리고 고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병이 이미 너무 진전 되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의사가 주는 약을 먹기 시작했으나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요법의 약도 써 봤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였다. 이제는 죽을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엘살바도르에 계신 아버지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나를 기억하시도록 선물로 보내려고 단파를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를 샀다.

어느날 저녁 라디오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보려고 켜보았다. 다이알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스페인어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우연히 들을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 스페인, 멕시코 등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이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과학과 건강 (附 성서의 열쇠)’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이것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 방송 프로그램 끝에 담당자는 전세계에 퍼져있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독서실에서 이 책을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독서실을 찾아서 이 책을 사자마자 곧장 집으로 가지고 와 읽기 시작하였다.

그 책의 162 페이지에 다다르자 다음과 같은 놀라운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진리의 햇빛을 몸에 비추어 기운이 나게 하고 정화시킨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체질을 개선하며 진리로 오류를 중화한다. 분비기능을 변화시켜 분비물을 내보내게 하며 종양을 녹이고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병든 뼈를 온전하게 재생시킨다. 이 과학의 효과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그 근본을 변화 시킴으로써 신성한 **마음**의 조화에 순종하게 하도록 한다.” 이 구절을 읽는 동안 나는 마치 어떤 따뜻한 것이 나를 감싸는 것처럼 느꼈다.

한 두주 정도 계속해서 읽고 공부했을 때 나는 장염의 모든 증상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의사에게 갔을 때,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하고는 병이 완전히 치료됐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 때 완치된 이래 전혀 재발은 없었다.

‘과학과 건강’을 공부한 후로 나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뀌어 졌다. 그 전에는 인간은 질병의 피해자로 언제나 병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공부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며 우리의 보호자 시라는 것을 배웠다.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

시편 46 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며 곤경으로부터 구해주신다”. 에레미야서에 있는 다음의 성경 구절도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와 그들을 낮게 하고 그들에게 평화와 진리의 풍성함을 보여주리라.” (33 장 6 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과 우리를 치료하는 약은 영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신성한 **사랑**으로 앎은 나의 삶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나는 험난한 강물에 떠 내려갈 때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나무를 붙들고 마침내 강물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었다.